연말연시, 공부·수행 점검 시기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12월의 세모가 되면 송구영신의 인사가 오간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야기,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위로를 건넨다. 요즈음 통신매체가 전자화되어 종이 연하장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짧고 빠른 시간에 수십 명의 벗에게 디지털 연하장을 보내고 받으면서 서로 감사를 교환한다. 문자나 디지털 연하장을 주고받으며 지난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대다수 현대인이 보내는 연말연시의 모습이다.

해의 길이나 기온의 따뜻함과 추움 등을 경계 삼아 한 해를 마감하고 시작하는 연말연시는 늘 돌아온다. 전통 시대에는 대체로 농사를 시작하는 음력 정월이나 입춘과 농사를 끝내는 음력 11월의 중동(仲冬) 사이에 그 시작점을 삼았으나 양력을 주로 사용하는 현대의 연말연시는 동지를 열흘 정도 지난 뒤 가장 추운 때이다.

연중 가장 추운 이때 불교 경전에서는 이 시기를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 하고 있다. 〈대지도론(大智度論)〉에, 붓다께서 추위로 인해 몸이 불편하였다. 사람들은 '붓다께서는 신력이 무량하고 위력과 덕이 높고 높아 말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고통을 받는가'라고 질문하거나, 또 '동지 전후 8일 밤에 찬바람이 파죽지세로 불어 삼의(三衣)로 추위를 막는다'라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당시 불교에서는 추위가 극심한 이 시기를 삼기(三忌/紀, 45일)라고 하며 '재계(齋戒)하라'고 가르친다. 동지 이후 45일간을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는 날(재일)로 수용한 것이다.

원효 스님 "죽음 순식간, 수행하라" 강조
동지 이후 45일 재계하는 재일로 수용
연말연시, 나의 공부 점검 시간 삼아야

또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에는 재일에 귀신이 많다고 하며, 재계하고 보시하며, 1일 동안 청정한 행을 행하면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재일은 삼가고, 근신하는 날인데, 연말연시는 동지 이후 삼기의 첫 기일(紀日, 15일)에 해당하며, 이 기일을 재일처럼 정진하는 것이다. 이 동지 8일 뒤는 현대의 연말연시 기간인데, 불자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알려준다.

지난 한 해의 묵은 빚을 갚고, 맞이하는 새해에는 좋은 업을 쌓자는 연말연시의 교훈에 다시 수행을 점검하는 시기라고 깨우치고 있다. 원효 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이렇게 경책한다. "한 시각 한 시각이 지나고, 밤낮이 빨리 지나 한 달 한 달이 바뀌고 바뀌어 문득 다음 해가 이르고, 다시 한해 한해 지나 순식간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니 부지런히 수행하여라."

지난해를 정리하고 오는 해를 맞이하는 시기를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는 기간으로 정하여 수행하라는 것이다. 연말연시는 단순히 한 해를 보내고 다음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자의 수행을 경책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해서 연말연시는 나의 공부가 얼마나 잘 진척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원효 스님은 "부서진 수레는 구르지 못하듯이 늙은 사람은 수행하기 어렵다. 급하고 다급하다"라고 하며 수행하라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렇다. 불자에게 연말연시는 몸과 마음을 닦아 추위를 이겨내며, 지나간 한해의 업을 살펴 반성하고 참회하며 마감하고, 오는 새해에는 더 좋은 업을 짓자고 다짐하며, 나의 공부, 나의 수행을 점검하는 때라고 하겠다.

한국 정치, 중도와 연기에 주목을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 국화꽃은 피우기 위해 /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비탄과 불안으로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가슴에 다 나온다. 지금 한국 사회는 비탄과 불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는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아득한 느낌이 든다.

새삼 독일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가 떠오른다. 올리히 벡은 한국불교에 깊은 애정을 갖고 법명도 받았다. 그는 21세기 사회를 위험사회로 진단하였는데 그 위험의 요인이 바로 인간이 만든 근대화 문명으로 본다. 인간이 만든 문명이 불화산이 되어 지구촌을 덮친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찰적 근대화'를 주장한다.

〈위험사회〉를 읽으면서 깊은 공감을 했으나 그래도 한 걸음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위험의 파고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덮치고 있다. 그리고 그 제일 큰 원인이 바로 정치이고 정치인이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바로 정치적 존재라는 뜻이다. 인간의 삶의 양식은 정치적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분단과 6·25 전쟁 등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사례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 왔다. 이를 어쩌랴. 지금은 혼돈의 늪에 빠져 온 국민이 불안과 우울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 원인의 근본은 한국 정치가 탐진치(貪瞋癡), 즉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美에릭 리우 등 '정원형 지성' 주장해
구성원 상호호혜적 연대 기반에 초점
연기적 지성과 중도 결합된 정치 필요

붓다의 핵심 가르침은 탐진치를 소멸하고 삶의 고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런데 탐진치 소멸은 결코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정치체제나 그 정치 구성원들이 탐진치에 빠지면 그 피해는 엄청나게 크다. 그것은 개인의 업을 넘어 공업(共業)의 차원으로 확대된다. 민주주의 모범으로 불렸던 미국, 유럽 등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와 붕괴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 민주적 정치 생태계를 바르게 정립하려는 여러 방안도 제시 되고 있다.

필자는 미국의 에릭 리우(Erich Liu)와 닉 하나우어(Nick Hanauer)의 공저인 〈민주주의 정원(The Garden of Democracy)〉에 깊은 공감을 가진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원형' 지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바로 '연기법'과 '중도'에 바탕한 정치이다. 사회 구성원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호혜적이며 네트워크화되어 상호의 존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바로 '정원형 지성'이다. 모든 생명체가 함께하는 정원을 가꾸는 마음이 바로 정원형 지성이다.

붓다 정치철학의 핵심은 자비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문화와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 구성원의 연기적 지성과 중도가 결합된 정치이다. 지금의 비탄과 고통이 한 송이 국화꽃이 피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

社 說

불교계, 여객기 사고 치유 마음 모으자

잊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연말을 맞아 부모와 자녀, 친구와 함께 올랐던 즐거운 여행길이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사고 직후 불교계는 언제나 그랬듯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고 직후 애도문을 발표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을 마감한 희생자분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원하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하고, 구조된 생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천태종을 비롯한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지도자스님들도 일제히 애도 메시지를 발표하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했다. 또한 정치권에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사고 다음날인 12월 30일 무안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진우 스님은 분향을 마치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절망하고 계시는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면서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계사와 봉은사를 비롯해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등 전국 사찰에도 분향소가 마련됐고, 12월 31일 초하루법회에는 전국 사찰에서 희생자 추모 명종(鳴鐘) 5타, 묵념과 함께 영가 추모 기도가 진행됐다.

유가족들을 위한 현장 지원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무안공항에 간식부스와 주차장에는 차와 음료를 제공하는 부스를 설치해 유가족의 마음을 달랬다.

종파를 초월해 불교계가 보여준 추모 물결은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보여줘야 할 모범적인 모습이었다. 불교의 자비(慈悲)는 자(慈)와 비(悲)의 합성어다. '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생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며, '비'는 연민의 마음으로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비는 대승불교에서 모든 수행의 근본에 있다.

세밑 안타까운 참사, 불교계 추모 물결 빛났다
희생자 49재, 유가족 심리 치유 등도 진행돼야

고려 고승 보조국사 지눌 스님은 〈정혜결사문〉에서 "수행자는 먼저 남을 구제할 서원(誓願)을 세워 선정과 지혜를 닦고, 도의 힘이 모이면 자비를 구름처럼 펴서 영원토록 고뇌하는 일체의 중생을 구제"할 것을 강조한다.

현대의 달라이 라마 역시 "자비는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자 도와주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면, 자신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면 자비를 행하라"라고 설파했다.

어찌 보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것, 이 같은 공감능력이 현대사회의 자비일지 모른다. 세밑에 일어난 안타까운 참사, 이를 잘 보듬어 치유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이다. 희생자들의 49재부터 유가족 심리 치유와 물적 지원까지 불교계가 앞장서 진행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2025년 1월 8일 오전 12시 서울 일붕선원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9년(2025) 1월 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대한불교삼론종은 2025년 1월 13일 오전 10시 포천 보문정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9년(2025) 1월 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1월 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